

지난해 '부딪힘' 재해 사고로 92명 사망

전체 사망사고 10%...지난달만 3명 숨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하면 발생 확률 ↓”

A씨는 배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파낸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착기는 A씨를 보지 못한 채 작업을 위해 후진했고, A씨는 그대로 사망했다.

철근공장 하역장에서 일하던 B씨는 잠시 앉아 쉬고 있었다. 근처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지게차는 유리창이 심하게 오염돼 있어 B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B씨는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와 B씨처럼 '부딪힘'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지난해에만 9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같은 부딪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을 동시에 점검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딪힘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딪힘 사고는 말 그대로 작업자가 차량·건설 장비 등에 부딪히는 유형 중대재해로,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흔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속한다.

최근 3년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9.1%였고, 이 중 차량이나 건설장비에 부딪혀 숨진 경우가 236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92명이 숨졌고 특히 지난해에만 천안, 인천, 경기 고양시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유형의 사고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딪힘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52.1%) ▲기타업종(33.5%) ▲제조업(14.4%) 순이었다.

고용부는 부딪힘 사고의 대부분이 사전 안전대책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흔재작업, 즉 같은 작업장 안에서 기계 운행과 근로자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때 부딪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위험요인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준수해야 하고 기계가 작업하는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관리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기준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지난해 9일 설명회에서 “현장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식개선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같은 부딪힘 사고는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와 충돌방지장치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 정부가 시행 중인 250억원 상당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당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안전보장장비를 뜻한다. AI 기반의 인체감지 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흔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1차 공모가 마감됐고, 이달 중순경 2차 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유나 기자



해양교육원, '바다로함' 함정공개행사 성황리에 마쳐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제57회 여수 거북선축제 기간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교육원 실습함정 '바다로함' 공개행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무안소방,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물품 설치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불철 산림에 인접하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 화재안전물품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5·18 당시 사라진 미성년자 24명...“해외입양 가능성도”

10세 이하 8명·19세 이하 16명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10대 이하 미성년자들의 수가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가 해외로 입양됐을 가능성도 있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1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행방불명됐다고 신고된 10대 이하 미성년자 수는 현재까지 24명(10세 이하 8명·19세 이하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행방불명 신고자 242명의 약 10%에 달한다.

조사위는 이들 중 미성년 행방불명자가 일부가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해외로 입양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소재가 파악된 일부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5·18 당시 11살 나이로 행방 불명됐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된 조모씨의 경우 성장기에 서울과 부산의 아동복지시설을 전전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회상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미성년자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련 민간 단체도 파악·확인하고 있다. 조사위는 나아가 전체 행방불명의 행적에 대한 5·18 관련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보고서를 작성, 이를 기반으로 한 피해 현장 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행방불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환 기자



담양소방, 어린이날 맞아 '119희망나눔꾸러미' 캠페인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어린이날을 맞아 담양·곡성군의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들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119희망나눔꾸러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기자회견하는 전교조 회원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직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교육분야 정책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여신도 3명, 정명석 성추행혐의로 추가고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련원서 성추행 당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 대한 피해자가 3명이 추가됐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여신도 3명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정명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고소로 정명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여신도는 총 9명으로 늘었다.

특히 독일 국적인 여신도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소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앞서 고소장을 제출한 다른 한국인 여신도 3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JMS 2인자인 정정은(44)과 민원국장 등 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임형택 기자



텃밭에 양귀비 기른 노인들 줄줄이 적발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기른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 수심송이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 송정동과 운수동에 있는 자택 뒤편 텃밭에서 마약 제조에 쓰이는 양귀비를 각각 100주 가량 길러온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귀비 147주, B씨는 117주를 각각 텃밭에서 몰래 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씨앗이 날아와 스스로 자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를 제외한 주변 잡초가 정리된 것을 근거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길렀을 것이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60대 여성 C씨 등 6명을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남구 백운동 각자의 자택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최소 1주에서 최대 22주까지 기르다 적발됐다.

C씨 등은 ‘씨가 저절로 날아왔다’, ‘소화제·통증 완화제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족 전용 소화제, 상비약 등에 쓰인다는 이유를 감언해 양귀비 50주 이하 재배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는 지침이 바뀌어 한 주라도 기를 경우 적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형택 기자



여수경찰, 불법개조·소음 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8일 여수시 기후생태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하여 여수시 웅천동 공에그린 앞 도로를 비롯한 주요교차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수=김현근 기자



나주경찰, 대학생 치안 서포터즈 '유니폴'과 합동 순찰 및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4일 교내 여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치안 서포터즈 '유니폴'과 함께 동신대학교 캠퍼스 내의 야간 합동 순찰 및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보성경찰, 5월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성군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상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보성=김택순 기자